

무분별 개발 초래 용도지역 변경, 근본적인 개선 시급

대장동 개발 사건 계기... 녹지, 상업지역 바꿔 막대한 이익 차단 혁신도시 부영주택 대표적... 개발 수익, 공공기여 비율 높여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계기로 광주·전남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개발업체, 공기업 등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데 비해 지역 및 공공에 기여하는 바는 턱없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발 계획에 따라 손쉽게 녹지·공업지역 등 저렴한 토지를 고가의 주거·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지자체들의 관행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발에 따른 수익이 개발업체에게만 집중되게 하는 법·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공개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녹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부영CC 잔여지 개발이다. 부영CC 용도변경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특혜' 사업으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자와 나누시는 이를 그대로 밀어부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한전공대 부지(40만㎡)를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전공대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나머지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자인 부영주택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녹지를 없애고, 아파트 숲을 짓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업체의 개발계획에 대해 나누시가 사실상 방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의 편에서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개발 대상이 되고 있는 광주평동지역, 산정지구, 일신·전남방직 부지, 금호타이어 부지 등은 공업·녹지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분양해 수익을 내려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지자체, 공기업 등이 자체 예산 투입 없이 부지를 개발하거나 토지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업체에게 부지를 넘기는 등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변경에 따라 개발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 이들 개발업체의 조건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 과정이 없고 개발계획도 비공개로 추진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공익보다는 사익에 충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이러한 개발이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다 기존 경관이나 장소성 등을 완전히 파괴·훼손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부영CC 잔여지 개발의 경우 마치 지역발전의 위해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한다고 해놓고 잔여지 용도변경을 통해 이를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얻으려는 비상식적인 사례"라며 "이 외에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개발업체에게 손쉽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개발방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 시점이며, 개발수익을 사전에 추정해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고흥 등 전남 16곳 '인구감소지역' 지정...대규모 행·재정 지원

행안부 전국 89곳 지정·고시

정부가 담양·고흥·함평 등 전남 16개 군지역을 포함한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지자체 주도의 인구 감소 대응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수도권 신도시 및 공장 건설·시설 규제, 대학·공공기관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근본 처방이 빠져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5년 주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89개 시군으로 전남과 경북 기초단체가 가장 많이 포함됐다. 전남에선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

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16개 군지역이 지정됐다. 전남과 함께 인구 소멸 위기가 커지는 경북에서도 16개 시군이 지정됐다. 다음으로 강원지역 12개 시군, 경남 11개 시군, 전북 10개 시군, 충남 9개 시군, 충북 6개 시군, 부산 3개 구, 인천·경기·대구 각 2개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인구 감소지역을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로 구성됐으며, 지표별 가중치 부여 등을 거쳐 인구 감소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인구 감소지역 지원계획도 내놨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씩 10년)과 국고보조금 등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등을 통해 지원한다. 제도적 지원으

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지역 지정과 지원 계획 확정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정부의 인구 감소지역 지정과 지원 계획 발표에 대해 전남도는 일단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내놓은 데 대해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긍정평가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선 일단 긍정 평가하면서도 국가차원의 청사진 제시와 근본처방이 빠져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한다.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만원 광주대 교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만하나,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정책이 큰 그림에서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며 "지원책만 말할 게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 및 공장 건설·시설 규제, 대학 및 정부 부처,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규제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6~17세 백신 접종 16~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첫날인 18일 광주시 북구 광주 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학생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 대학생·시 산하 기관 직원 확진

기숙사·동아리활동 학생 등 380명 무더기 검사...4일째 한자릿수

광주 모 대학교 학생과 광주시 산하 기관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한 결과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기숙사, 동아리 활동 등에서 A씨를 접촉한 380명을 검사했다. 365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국은 85명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시스템(GPS) 등 심층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같은 날 광주 북구 소재 시 산하 모 기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날 직원 등 50여명이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 직원 3명을 격리 조치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서는 직업소개소 전수 검사 관련 1명,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1명 등 모두 3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 일일 확진자는 지난 13일 10명을 기록한 뒤

14일 6명, 15일 6명, 16일 9명, 17일 4명 등 한 자릿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 코로나 시대 시민 핫 플레이스로

도심 위치·즐거거리·편의시설... 연평균 2만4천여 명 이용

광주에서 운영하는 '시민의 숲 야영장'이 코로나19 시대를 견뎌내는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에 따르면 2015년 6월 북구 첨단에 문을 연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이하 야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연평균 2만 4400여 명에 이른다. 한때 코로나19로 일시 폐쇄되기도 했지만, 도심에 위치하고 캠핑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갖춘 덕분에 캠핑을 즐기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야영장은 57면의 사이트(자동차 19, 일반 38)와 관리소,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시로 시민 편의를 위한 환경도 정비돼 이뤄지고 있다.

또 야영장 주변은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으며, 47만㎡ 영산강변과 2.6km의 생태탐방숲길, 드론공원, 대산파크골프장 등도 조성돼 있는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야영장은 현재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57면 중 절반 면인 28면만 운영 중이며, 다

음달 예약은 매일 첫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할 수 있다. 인터넷 선착순 예약 시스템인데, 평균 5분 이내에 모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야영장 이용 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이용요금의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수형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쌓인 피로감을 야영장에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힐링의 장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기도 파주에 투자

3억5천만원

하실 분, 1분 모십니다

대지 2007㎡(607평), 시세 24억

2~3년 후 매가 40억 정도 확산

아파트/빌라 신축 예정 부지

문의.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건물, 다가구, 전원주택용지, 임야, 매매

1 / 상가건물

광주, 북구, 오치 4층 대384㎡(116평) 건물 연998㎡(302평) 이마트 집단지거리코너 먹자골목 주도로 단층6개 점포 상권 최상 부1억8천만원 월매444만원 매입 후 월세 상환 조정가 매1억5천만원

2 / 다가구 및 주택용지 ※ 주거2종

담양읍, 양거리 강변, 관방재림, 유림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 포장 배수시설 등. 남향 경관수려 교통요지 시장인접 토지4,220㎡(1,276평) 매㎡ 6십 5만원

3 / 전원주택, 10여채 단지조성용, 선산모터 가능

담양, 공성, 덕성리, 덕진 산자락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스타라브룸 외벽, 적벽돌, 2층연 129㎡(39평) 소형 승강기 설치
- 토지 8,098㎡(2,452평) 40여년생 소나무 명목 외 8종 정원수 및 과수 380주 포함
- 전원주택 단지 선호지 10채 조성 가능
- 본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묘지 조성가 경관 수려한 숲 속 매 7억

4 / 전원주택용 토지와 식재된 정원수 20년생 8종 2천주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년생 외 7종 2천여주 조성 포함

전원주택 단지 조성, 물차장, 펜션 다목적 사용자, 구내포장 배수 시설, 남향에 어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 8만원

5 / 임야, 휴양림 30년생 편백 1만주 마을 변방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 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3,000평) 구내 발달성 전원주택지 귀농 귀촌자 휴양지 최상 ㎡ 6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청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동반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합병 공고

농업회사법인 금오도심마을공동 유휴농지와 농업회사법인 유휴농지 금오도심마을공동 유휴농지 2021. 10. 14. 각 회사의 사원 권리의 동등과 이해의 깊어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회사의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합병명칭: 농업회사법인 금오도심마을공동 유휴농지 농업회사법인 금오도심마을공동 유휴농지 합병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농업회사법인 유휴농지 금오도심마을공동 유휴농지
2. 자본금액: 농업회사법인 유휴농지 금오도심마을공동 유휴농지 8,000,000원(8,000,000원)은 농업회사법인 금오도심마을공동 유휴농지 흡수합병으로 인한다.
3. 합병기일: 2021. 11. 22.

2021. 10. 19.

농업회사법인 유휴농지 금오도심마을공동 유휴농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대우빌딩 47 대표이사 박재성
농업회사법인 금오도심마을공동 유휴농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대우빌딩 47 대표이사 박재성
공동대표이사 김유희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박항영(640815-XXXXXX)
• 최후주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성로 116 (삼전리)

피상속인 방 박항영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가 2021년 10월 11일자로 신청하여 2021년 10월 12일 실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주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0월 19일

• 상속인: 1. 최명희(650517-XXXXXX) 2. 박시영(950831-XXXXXX) 3. 박시연(970521-XXXXXX)
서울 서초구 동광동3길 113, 501호 (영배동, 정석빌라)

• 신고기간: 2021. 10. 19 ~ 2021. 12. 28.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최명희의 주소

산행안내

▲광주산악회 10월24일(일) 오대산 노인 볼스&스노우볼스 선제길, 상원사, 월정사 트레킹 산행, 영주체육관 04:30, 풍야별원 04:35, 롯데백화점 04:40, 광주역 04:45, 문예유문 04:55, 비엔누주차장 05:00 * 다음카페 광주지산악회 ☎ 010 7794 6920